

자동차/모빌리티

샤오미의 전략, AI 패권 전쟁의 신호탄

Xiaomi IFA 2026 Overview, Game Changer 등장

- IFA 2026에 첫 참가한 샤오미는 사상 최대 해외 단독 전시 부스(3,300㎡)를 통해 제품-기술-데모 등 380종 이상을 전시하고 'Human × Car × Home' 전략 비전과 생태계 및 글로벌 확장 전략을 소개. 특히 기존 AIoT 기기 제조사를 넘어 모빌리티와 주거 환경을 포괄하는 비전을 통해 AI Tomorrow → AI Today → Product Portfolio의 3단계 구조로 제품 생태계 제시

- **전략**: 샤오미는 가전과 스마트폰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종합 지능형 모빌리티와 제조 인프라로 전면 확장 선언. 이번 발표가 기존 전략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스마트폰 중심의 단순 사물인터넷(IoT) 연동을 넘어, 모바일 기기, 스마트홈 가전, 순수 전기차, 산업용 로봇틱스를 독자 운영체제로 관통하는 '인·차·가(Human × Car × Home)' 생태계의 실증적 완성도를 입증

- **AI/로봇틱스**: 과거 시연되던 휴머노이드 로봇 '사이버원(CyberOne)'이 단순 감정 인식과 동작 구현에 그쳤던 것과 달리, 샤오미는 실제 자사 전기차 생산 라인 너트체결 공정에 로봇 투입하여 작업 성공률을 초기 약 90%에서 98%까지 끌어올린 4개월간 성능 검증 데이터 공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오피머스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전략과 궤를 같이 함. 샤오미가 보유한 오픈소스 대형 언어 모델(LLM) Xiaomi MiMO는 2024년 7월 글로벌 토큰 사용량 1위 기록

→ 이는 지난 8/26 보고서 [중국 WRC 2026 방문 후기 및 투자 활용법 - 이제 그만 춤추고 일할 시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로봇틱스 산업이 기존 실험실 단계에서 양산 전 학습과 검증 단계에 돌입함과 같은 맥락. 차량 양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시각 데이터, 힘 센서 피드백, 모터 토크 및 부품 조립 궤적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로봇의 행동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의 선순환 체계가 실제 제조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

- **모빌리티**: 라인업과 인프라 부문에서도 체계적인 고도화 중. 양산 세단인 신형 SU7뿐만 아니라 뉴 르부르크링 랩타임 기록을 겨냥한 고성능 플래그십 'SU7 울트라(Ultra)', 가상 레이싱 기반의 콘셉트 카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전면에 배치, 차량 엔지니어링 역량 강조.

→ 하드웨어 라인업의 이면에는 11억 6천만 대 이상의 활성 기기를 연결하는 통합 운영체제 '샤오미 하이퍼OS(Xiaomi HyperOS)'와 자체 개발 칩셋(XRING 등)이 중심. 중국 본토에서 첫 전기차 인도 이후 누적 7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확보한 샤오미는 2027년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장 진출을 공식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AI, OS, 자체 반도체, 스마트 EV, 로봇틱스 등에 총 2,000억 위안(한화 약 43조원)을 집중 투자하는 중장기 자본 배분 계획 확정

중국 진영의 지능화 경쟁, SDV에서 AIDV로 전환

- **AIDV로 전환**: 중국 모빌리티 시장의 기술 패러다임이 중앙 컴퓨팅 아키텍처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에서 거대 인공지능 모델이 주행과 차량 물리 거동을 직접 통제하는 'AI 정의 차량(AIDV)'으로 이동. SDV가 분산 제어를 통합하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적 전환이었다면, AIDV는 신경망 모델이 인지·판단뿐 아니라 사시 역학, 조향, 제동, 구동 토크, 배터리 열관리까지 엔드투엔드(End-to-End)로 통합 제어하는 지능화 단계

OVERWEIGHT

Analyst 장문수 joseph@hmsec.com

- **기업 전략:** 인왕지능기술(화웨이 스마트카 솔루션 사업 부문이 독립)은 XMC 시스템을 앞세워 글로벌 Tier1이 점유해 온 서스펜션, 댐핑, 브레이크 제어 영역을 단일 인공지능 모델 아래 종속. BYD는 1,000V 아키텍처 기반의 5분 충전(400km 주행) 배터리 시스템과 독자 개발한 4나노 공정의 쉬anzi A3 칩을 결합하여 차량 전반의 에너지와 컴퓨팅 주도권을 동시에 내재화. 샤오펑은 중간 매개 모듈을 제거한 2세대 VLA 신경망을 적용해 반응 지연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심 자율주행 성능 개선.

→ 중국 전기차 산업의 도약이 개별 부품이나 배터리 가격 인하에 국한되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 샤시 모션, 컴퓨팅 칩셋, E2E 파운디션 모델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 **모바일-모빌리티 융합:** 중국 테크/완성차 진영이 추진하는 기술 통합 1차 목표는 사용자의 일상 데이터를 중단 없이 흡수하는 라이프스타일 운영체제의 확립. 스마트폰을 통해 축적된 사용자의 일정, 소비 취향, 디지털 서비스 이용 기록은 차량 탑승과 동시에 차량 내 인터페이스로 연결, 실내 공조, 조명, 자율주행 목적지 추천, 가정 내 스마트홈 기기 제어로 확장.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과 디지털 업무 공간을 매개하는 고부가가치 디바이스로 변화.

→ 교체 주기가 길고 일상 체류 시간이 긴 자동차 플랫폼을 장악해 타사 모바일 기기나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생태계 락인(Lock-in) 효과 구축 목적

- **물리세계 데이터 플라이휠 선점:** AI 진화 축이 텍스트/이미지 중심의 생성형 모델에서 물리 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물리적 AI로 전환, 현실 세계의 다차원 센서 데이터 확보 능력이 핵심적인 경쟁 자산화. 수십만 대의 전기차 라인에서 발생하는 정밀 조립 실패·성공 데이터는 산업용 로봇의 촉각 및 행동 제어 파운디션 모델을 훈련하는 기초 자원

→ 도로 위 수백만 대의 차량 플릿(Fleet)에서 전송되는 주행 환경의 Edge Case 데이터는 자율주행 신경망 강화 요인. 제조 공장의 효율화가 차량 생산비를 낮추고, 단가 인하로 확대된 양산차가 다시 방대한 물리 데이터를 회수해 지능화 알고리즘을 갱신하는 이중 데이터 플라이휠 구조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조립 위주 제조사가 따라잡기 힘든 진입 장벽을 형성

- **사업 구조의 변화 속 중국 경쟁 우위 선점:** 중국 진영의 중국적인 사업 모델은 서구권 완성차/부품사가 100년 이상 확립해 온 계층적 분업 구도의 해체. 자체 칩셋과 통합 OS, 샤시 모션 AI를 내재화 해 전통적인 하드웨어 부품을 단순 조립 단위로 격하하고, 차량의 수익 구조를 차량 일시불 판매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자율주행 라이선스, 디지털서비스 수수료 등 다변화. 2027년 샤오미의 독일 진출을 포함한 글로벌 확장은 단순한 전기차 수출이 아닌, 자국에서 검증된 AIDV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플랫폼 생태계를 선진 시장에 이식하려는 시도로 해석

글로벌 영토 분할, 시장 방어를 위한 기술 개발 속도 향상과 데이터 실행력 중심의 체질 개선 필요

- **중국발 AIDV 패권 경쟁은 한국 Tier 1 생태계에 구조 전환 강요:** 화웨이의 XMC나 BYD의 슈퍼브레인 구조처럼 차체, 조향, 제동, 현가장치를 관장하는 6개 도메인이 단일 AI 중앙 컴퓨터로 통합 제어되는 환경에서 부품사들이 납품하던 개별 전자제어장치(ECU)와 독자 펌웨어의 가치는 소멸. 소프트웨어가 완성차 제조사나 거대 테크 기업의 중앙 플랫폼으로 흡수되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Decoupling이 발생. 국내 부품사는 중앙 HPC의 표준 통신 규격에 맞춘 '스마트 액추에이터(Smart Actuator)' 기술과 고신뢰성 센서 모듈 역량을 내재화하는 체질 개선 시급

- **안보 규제 이면에 중국의 주요 시장 침투 우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관세 장벽과 커넥티드 차량 데이터 안보 규제는 중국산 AIDV의 북미 진출을 차단하고 유럽 침투 속도를 일정 부분 제어하는 완충지대 역할.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지정학적 틈새를 활용해 미국 시장에서 고수익 전략 추구. 그러나 규제 장벽이 낮은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는 BYD와 샤오핑의 초저가 AIDV 공세에 직면 중이고, 샤오미의 2027년 독일 진출 계획 같이 유럽 본토에서도 직접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 경쟁이 불가피

- **중국과의 속도전에서 기존 전략과 다른 실행력 필요:** AVP본부장 및 포티투닷 박민우 사장이 강조한 "자율주행 경쟁은 결국 실행력의 전쟁"이라는 명제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직면한 본질적 혁신의 방향을 지목. 스마트폰 산업의 제품 수명 주기와 AI 학습 주기를 결합하여 수개월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진화시키는 중국 진영의 속도전은 4~5년 주기의 전통적인 완성차 개발 체계와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

- **데이터 플라이휠 실질적 가동이 성공의 열쇠:** 현대차그룹이 2028년 첫 SDV를 양산하고 2029년 새 만금 AI 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하기 전까지, 선행 양산차 및 글로벌 플랫폼에서 유의미한 주행 데이터를 일관되게 흡수할 수 있도록 센서 표준화 작업을 계획의 차질 없이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 의미 있는 주행 Edge Case를 선별해 인공지능 학습으로 피드백하는 데이터 플라이휠 파이프라인의 실질적 가동 여부가 기술 추격의 성패를 가를 전망

피지컬 AI 모빌리티 시대의 생존 방정식

- 샤오미의 IFA 참전과 사이버원의 생산 라인 투입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단순한 전시성 이벤트를 넘어, 운영체제, 생성형 AI, 산업용 로봇틱스, 그리고 양산 전기차가 융합된 '피지컬 AI 플랫폼'의 완전한 가동을 시장에 확인. 화웨이, BYD, 샤오핑 주도의 중국 AIDV 전환은 하드웨어 단품 판매 중심의 모빌리티 산업을 지능형 인공지능 운영체제 중심의 플랫폼 산업으로 강제 재편 중

- 현대차그룹은 탁월한 기계적 완성도와 유연한 파워트레인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3위의 재무적 체력을 다졌으나, 소프트웨어 중심의 핵심 전장에서는 2028년 SDV 양산 시점까지의 기술적 시차를 좁혀야 하는 중대한 시험대로 판단. 엔비디아와의 표준화 협력, AVP 본부 중심의 기민한 조직 개편, 새 만금 GPU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연계한 데이터 플라이휠 체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야 중국발 AIDV 공세 방어와 글로벌 피지컬 AI 모빌리티 패권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주가는 현대차 CID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미국 중간선거 전 한미 협상 과정에서 대미 투자 구체화 속 로봇틱스 아메리카 법인 설립, 부지 선정 등 공급망 구체화와 관련한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 원화 강세와 현대차 출하 부진은 3분기 실적 부담을 높이는 부분이나 현재 원달러 환율이 분기말까지 유지 시 판매보충충당금 환입에 따른 실적 부담 완화 요인이 우려를 방어할 것으로 기대. 해당 모멘텀에 편승한 로봇틱스 밸류체인 및 완성차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필요

〈표1〉 Xiaomi IFA 2026 주요 내용

구분	핵심 내용
전시 개요	- IFA 첫 참가, 전시공간 3,300㎡+ (샤오미 사상 최대 해외 단독 전시) - 제품-기술-데모 380종+ 전시, 'Human × Car × Home' 스마트 생태계 소개 - AI Tomorrow → AI Today → Product Portfolio의 3단계 구조로 제품 생태계 제시
자동차(EV)	- 차량 3종 전시: Vision Gran Turismo, 신형 SU7, SU7 Ultra - 중국 본토 누적 70만대+ 인도, YU7 출시 첫날 확정주문 24만대+ - 독일 자동차 딜러그룹 8곳과 MoU 체결, 2027년 독일 포함 유럽 진출 계획
로봇	- CyberOne, 전시장에서 손하트-업지척 등 실시간 제스처 인터랙션 - 2세대 CyberOne: 키 170cm, 무게 66kg, 전신 66DoF (양손 33DoF) - Xiaomi Auto Factory에서 시험 운용 중 - 제조라인 네트워크 작업 성공률 4개월간 약 90%→98%
AI-반도체	- 자체 대형모델 최신 성과: MiMo-V2.5-Pro, Xiaomi Miloco, Xiaomi Midaw - AI × OS(HyperOS) × 자체 반도체(XRING)를 Human × Car × Home의 공통 기술 기반으로 제시 - Xiaomi 18 Fold: 차세대 XRING O3 칩 탑재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스마트홈(Mijia)	- Mijia 유럽 대규모 확장 발표 - 130개+ 카테고리 2,000종+ 제품, Xiaomi Home 앱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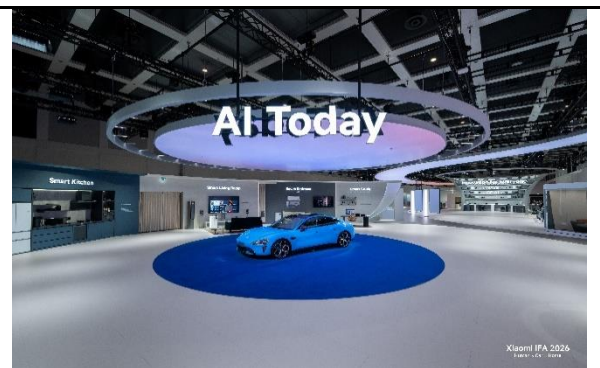
자료: Xiaomi, 현대차증권

〈그림1〉 Xiaomi IFA 2026



자료: Xiaomi, 현대차증권

〈그림2〉 Xiaomi IFA 2026



자료: Xiaomi, 현대차증권

〈그림3〉 Xiaomi CyberOne



자료: Xiaomi, 현대차증권

〈그림4〉 Xiaomi Vision GT



자료: Xiaomi, 현대차증권

〈표2〉 중국 진영의 지능화 경쟁

기업	핵심 지능화 아키텍처 및 시스템	자율주행 및 제어 특성	컴퓨팅 하드웨어 및 전동화 플랫폼	시장 포지셔닝 및 생태계 모델
화웨이 (인공지능기술)	XMC (Chassis Motion Control) 시스템	차체, 제동, 조향 등 사시 6개 물리 영역을 단일 AI로 통합 제어	다중 라이더 기반 고성능 연산 모듈 및 실시간 제어 칩셋	완성차 제조사 상위에서 소프트웨어·사시 플랫폼을 독점하는 생태계 공급자
BYD	쉬안지(Xuanji) 아키텍처, SuperBrain 분산-중앙 제어	차량-클라우드 AI 및 엣지 AI를 결합한 전 차량 생애주기 지능 제어	中 최초 독자 4nm 차량용 AI 칩 '쉬안지 A3' (최대 2,100 TOPS), 1,000V 초급속 충전	자체 배터리·반도체 수직계열화 기반 원가통제력과 거대양산 역량
샤오펑 (Xpeng)	2세대 VLA (Vision-Language-Action) 모델	시각과 언어 인지를 물리적 주행 행동으로 직접 연결하는 2단 직결 E2E 구조	초저지연 연산 파이프라인 및 고성능 NPU 기반 비지도 학습 모델	'中 테슬라' 포지셔닝 바탕의 선행 AI 자율주행 SW 고도화
샤오미	샤오미 하이퍼OS (HyperOS), 피지컬 AI 제조 시스템	스마트폰-차량-가전 연계 상황 인지 및 연속적 에이전트 인터랙션	자체 칩셋(XRING 시리즈), EV 공장 연계 휴머노이드 로봇	방대한 스마트폰 사용자 기반 앰비언트 OS 지배력 및 B2C 접점 확보

자료: 현대차증권

〈표3〉 현대자동차그룹의 SDV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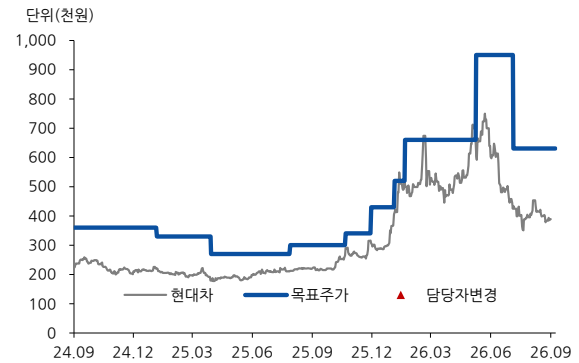
구분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로드맵 및 지표	세부 실행 내용 및 기술 아키텍처
SDV 양산 일정	2026년 SDV 페이스카 개발 후 2028년 첫 SDV 양산차 공식 출시	제네시스 플래그십 등 주요 차종에 통합 OS 및 레벨 2+ 자율주행 전면 탑재
운영체제 및 AI 모델	Pleos Vehicle OS 및 Atria AI	고정밀 지도(HD Map)를 배제하고 8개 카메라와 ~400 TOPS NPU 기반의 비전 E2E NOA 구현
센서 및 컴퓨팅 체계	엔비디아(NVIDIA) 기반 센서 규격 표준화	현대·기아·포티투닷·모셔널 간 데이터 형식을 통일하여 원시 데이터 학습 파이프라인 구축
AI 슈퍼컴퓨팅 인프라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건립	2029년까지 GPU 5만 장 이상 규모의 연산 인프라를 가동해 독자적 데이터 플라이휠 가동
수익성 및 원가 목표	2030년 연결 영업이익률 9% 이상, 매출원가율 3%p 절감	표준화된 차체 및 센서 아키텍처 도입, 현지화 부품 공급을 통한 제조 원가 구조 혁신

자료: 현대차, 현대차증권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4.03.15	BUY	360,000	-29.74	-17.22
2024.09.15	AFTER 6M	360,000	-38.12	-28.06
2025.01.15	BUY	330,000	-38.66	-32.73
2025.04.08	BUY	270,000	-26.28	-17.41
2025.08.07	BUY	300,000	-24.85	-11.67
2025.10.31	BUY	340,000	-20.17	-7.21
2025.12.09	BUY	430,000	-27.93	-5.58
2026.01.14	BUY	520,000	-5.88	5.58
2026.01.30	BUY	660,000	-19.50	7.88
2026.05.19	BUY	950,000	-39.01	-21.05
2026.07.15	BUY	630,000	-36.36	-28.10
2026.09.11	BUY	6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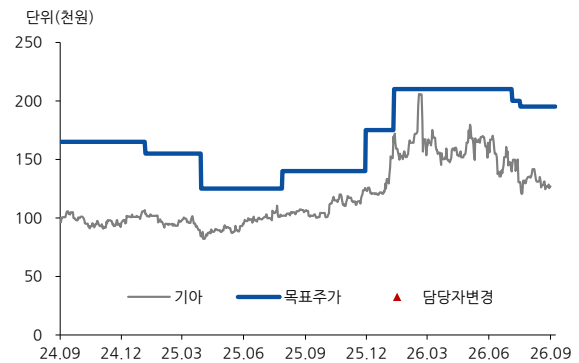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현대차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4.03.15	BUY	165,000	-30.75	-19.82
2024.09.15	AFTER 6M	165,000	-40.70	-35.33
2025.01.15	BUY	155,000	-37.74	-33.29
2025.04.08	BUY	125,000	-24.14	-11.68
2025.08.07	BUY	140,000	-22.09	-10.29
2025.12.09	BUY	175,000	-26.61	-3.14
2026.01.20	BUY	210,000	-24.16	-1.90
2026.07.15	BUY	200,000	-28.22	-25.10
2026.07.27	BUY	195,000	-33.14	-27.33
2026.09.11	BUY	19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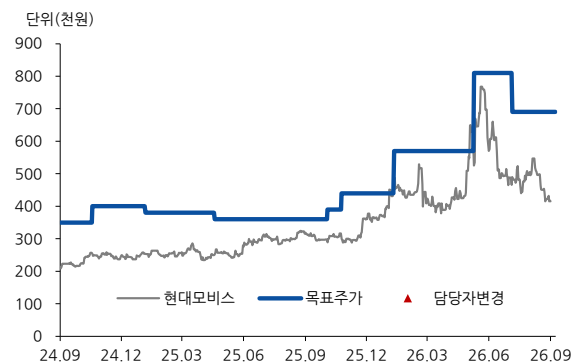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기아 주가 및 목표주가



▶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4.03.15	BUY	350,000	-34.13	-23.43
2024.09.15	AFTER 6M	350,000	-34.35	-26.71
2024.10.28	BUY	400,000	-38.22	-35.38
2025.01.15	BUY	380,000	-33.23	-24.87
2025.04.28	BUY	360,000	-19.48	-9.86
2025.10.13	BUY	390,000	-21.24	-18.97
2025.11.03	BUY	440,000	-21.24	3.98
2026.01.20	BUY	570,000	-22.21	14.04
2026.05.19	BUY	810,000	-27.87	-5.19
2026.07.15	BUY	690,000	-31.28	-20.72
2026.09.11	BUY	690,000		

▶ 최근 2년간 현대모비스 주가 및 목표주가



▶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와 관련하여 계열 회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장문수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 의견 분류

- ▶ 업종 투자 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 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 ~ +15%P 이내
 - SELL : 추천일 종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89건	95.5%
보유	9건	4.5%
매도	0건	0%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